

KIA '탁공'의

〈탁치고 공격〉



화

필



룡

나지완



점

최희섭



정

이범호

나지완, 지난 NC전서 홈런포 가동 '호랑이 군단' 화력쇼 점화

필-나지완-최희섭-이범호 '확장 클린업' 상대 투수에 산 넘어 산

잠자던 나지완의 홈런포에 시동이 걸리면서 2009년 재연을 향한 '호랑이 군단'의 화력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침묵을 이어오던 KIA 타이거즈의 4번 타자 나지완이 지난 7일 NC 해커를 상대로 우중간을 넘기며 2015시즌 마수결이 홈런을 터뜨렸다.

앞서 끝내기 역전 홈런을 날렸던 필, 나란히 멀티홈런을 터트렸던 최희섭-이범호에 이어 나지완까지 홈런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KIA의 한방 라인업은 더욱 막강해졌다.

2009년의 우승에는 한방이 있었다. 김상현(36홈런)과 최희섭(33홈런)이 홈런왕 경쟁을 하면서 정규시즌 1위를 끌었고, 가을잔치에서는 막내 안치홍의 한국시리즈 최연소 홈런과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11년을 기다린 'V10' 감격의 순간이 찾아왔다.

뜨거운 한방으로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KIA 타이거즈가 다시 또 불을 태운다. 이번에는 '빅 4'다.

타선의 파워 만으로는 2009년과 비교해도 뒤질 게 없다. 돌아온 최희섭이 V10의 주역 나지완과 다시 타선에 나란히 서게 됐고 김상현이 떠난 자리에는 이범호가 있고, 필도 있다.

최희섭이 한방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최희섭은 지난 1년 여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일찌감치 홈런을 쏘아 올렸다. 개막 두 번째 경기였던 LG와의 홈경기에서 611일 만

에 손맛을 본 최희섭은 SK 원정에서는 멀티홈런으로 팀의 4연승도 만들어냈다.

지난 시즌 타선을 지키던 멤버에 최희섭이 더해지면서 필-나지완-최희섭-이범호로 이어지는 '확장 클린업'이 운영되고 있다. 산 넘어 산이 기다리면서 상대 투수가 느끼는 압박감은 배가 됐다.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먼저 홈런포를 쏘아올렸던 이범호는 '빅 4'의 화룡점정으로 화력쇼의 키를 쥐고 있다. 4번 나지완의 앞뒤로 배치됐었던 이범호는 최희섭이 들어오면서 6번으로 물러나서 타석에 서고 있다.

자리에 변동이 생겼지만 이범호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입장이다.

이범호는 "찬스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자리이고 찬스가 많이 찾아온다. (최)희섭이 형이 불넷도 많이 얻기 때문에 앞에서 찬스가 만들어진다. 뒤에서 역할을 하고 찬스에 타격을 하는 게 잘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부상으로 하루 벤치멤버가 됐었던 필도 7일부터 수비까지 소화하면서 이상무다. 경험을 더한 3·4번 타자와 절박함으로 무장한 5번 타자 그리고 책임감으로 서는 6번 타자까지... '빅 4'가 그려낼 홈런 어치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그라운드 특특

김기태 감독, NC 결승타 주인공 이호준에 "독사야"

▲"독사야" = KIA의 연승행진을 중단시킨 광주일고 후배인 NC 이호준에 대한 김기태 감독의 평은 "독사야"였다. 이호준은 7일 2-2로 맞선 6회 1사 1-2루에서 스티븐슨을 상대로 좌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김 감독은 "독사야. 시범경기 때는 아프다고 허리 붙잡고 다니더니, 저렇게 치는 것 봐"라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훈련 시간에 인사를 하기 위해 KIA 덕아웃을 찾은 이호준. 김 감독은 "너는 오지 말아라"라는 농담과 함께 자신을 패장으로 만든 후배를 맞았다.

▲"보내고는 싶은데" = 김주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김기태 감독 경기에는 내보내고 싶지만 부상 재발이 걱정된다면 장만지 부상을 입은 김주찬은 한 차례 대타로 타석에 서기는 했지만 라인업에서 자취를 감췄다. 김 감독은 "좋은 선수가 또 다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 완벽하게 낫게 한 뒤 기용하려는 뜻이다. (대타로 쓸 수도 있지만) 치는 순간 스타트를 하면서 순간 뛰어나가는 힘으로 다시 다칠 수도 있다. 큰일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연일 덕아웃에서 방망이를 들고 김 감독 앞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김주찬은 8일에도 공·수 훈련을 모두 소화했지만 '급할수록 천

히'라는 김 감독의 의중에 따라 스타팅 라인업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슬라이딩 보셨죠?" = 유격수 강한울에게는 안타까운 슬라이딩이었다. 강한울은 8일 "어제 슬라이딩 보셨죠?"라며 한숨을 쉬었다. 7일 경기까지 26타수 2안타로 0.077의 타율에 그치고 있는 강한울에게는 안타 하나가 아쉬운 상황. 하지만 모처럼 잘 맞는 타구가 NC 김종호의 슬라이딩 캐치에 잡히면서 외야플라이가 되고 말았다. 강한울은 "안타가 될 타구 몇 개가 상대에게 잡혔다. 아쉽지만 제가 잘 쳐야죠"라며 아쉬움을 달랬다.

▲"10번 타자는 없으니까, 9번 타자로" = 최근 가장 화끈한 타격을 보이고 있는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말 못한 고민은 있다. "손시현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김 감독은 "아무 말도 못 해주는 상황이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여위었다."라고 답을 했다. 손시현은 7일 경기까지 25타석에 나왔지만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다. 계속된 부진에 부담이 늘었을 거라던 김 감독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늘은 가장 아래 타순에 배치했다. 10번 타자는 없으니까 9번 타자로 쓰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8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여자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경기. 첫골을 넣은 한국 조소현이 지소연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16강의 희망 '박·지 듀오'

여자축구대표팀 러시아와 2차 평가전 2-0 승...박은선·지소연 결승골 합작

'박라탄'과 '지메시'가 가세한 운덕여호가 러시아를 꺾고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16강 진출 전망을 밝혔다.

운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평가 2차전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이날 박은선(29·로시안카)과 지소연(24·첼시 레이디스) 조합이 국내 팬들 앞에 선을 보였다.

두 선수는 같은 클럽에서 뛰던 적이 없고 대표팀에서는 외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선발로 발을 맞춘 적이 있으나 국내에서 열리는 A매치에 함께 선발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선수의 조합은 파괴적이었다. 체격이 유럽 선수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박은선이 전방에서 중앙 수비진을 괴롭히는 사이 지소연이 양 측면 공격수들을 향해 '킬패스'를 연이어 부

렸다.

지소연은 후반 5분 추가골을 직접 만들었다.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러시아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문전 혼전 상황이 벌어졌다. 골지역 정면에서 도사리던 지소연은 공이 자신을 향해 흐르자 골망을 갈랐다.

박은선이 지소연의 득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크로스가 올라올 때 러시아 수비수들은 골지역 오른쪽에 있던 박은선에 신경을 집중하느라 지소연의 움직임에 감지 못한 듯했다.

182cm에 74kg의 체격을 자랑하는 박은선과 명문 첼시에서 월드컵레스트급 기량을 뽐내는 지소연의 조합은 이날 합격점을 줄 만들었다.

박은선은 발목 부상으로 몸상태가 완전하지 않다. 월드컵이 열리는 6월까지 컨디션을 더 끌어올린다면 파괴력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침묵 깬 추신수

오克蘭드전 시즌 첫 2루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했다.

추신수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克蘭드의 오코 콜리세움에서 열린 오克蘭드 애슬레틱스와의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2루타를 터뜨리며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개막전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추신수는 두 번째 경기에서 장타를 터뜨리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공격력을 보였다. 0-0인 2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오克蘭드 선발 제시 한의 5구째 바깥쪽 투심 패스트볼을 견뎌내며 2루타를 만들었다. /연합뉴스

몸 푸는 류현진

어깨통증 재발 후 첫 캐치볼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왼쪽 어깨 통증 재발 후 처음으로 캐치볼을 했다.

MLB닷컴은 8일(이하 한국시간) "류현진과 캐리 안선이 복귀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부상자 명단(DL)에 올라 메이저리그 개막을 맞이한 류현진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가볍게 캐치볼을 했다. 정밀진단을 받은 후 2주 만에 치른 첫 투구다. 하지만 정말 가벼운 캐치볼이었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일반인이 공을 던지는 수준의 가벼운 훈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